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6, Vol. 20, No. 2, 1~18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에 관한 연구

이수정 이혜선
경기대학교

최근 청소년비행은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해지고, 누범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들을 지닌 개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해야 하며, 적합한 처우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비행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확인된 비행특성 변인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셋째,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어떤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에서와 재범(2회 이상)자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특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허영심과 특권의식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절도 비행에서는 비행특성과 허영심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하위요인 중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은 비행관련 특성들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처우방안은 이와 같은 심리특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구성되어야 하며, 비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심리적 요인들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주요어 : 비행특성, 자기애적 성격성향, 비행청소년

교실에서 만화책을 함께 보던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사건, 10세, 12세 소년들이 망치를 이용해 잔혹한 살인을 벌이다 체포된 사건 등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세간에 알려지면서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에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에 대한 연도별 전과 현황'에 따르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전체 입건자 중 전과 3범 이상의 누범자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입건된 소년범은 1999년에 14만 3000여명에서 2003년에는 9만 60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사안별로는 1999년에 14만 3000여명의 입건자중 8.4%인 1만 2000

본 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이수정, 이혜선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여명이 구속됐고, 2003년에는 9만 6000여명 중 4.1%인 390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전체 소년범 숫자와 입건된 뒤 구속으로 이어진 인원 모두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재범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에는 전과 3범 이상의 소년범은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입건 인원의 11.1%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1만 900명으로 11.4%를 기록했다. 특히 1994년의 전과 3범 이상의 소년범 비율이 전체 입건된 인원 중 3.8%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누범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머니투데이, 2004).

이처럼, 청소년비행이 심각해지고, 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거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처를 통한 재범예방 또한 절실하다. 전체 강력범죄의 대다수가 극소수의 범죄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을 지닌 자들은 실상 청소년기 조발비행으로 범죄행각을 시작한다. 때문에, 서구에서는 사회적인 비행촉발요인 이외에 개인 내적인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는 차별적인 처우를 청소년시기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비행은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환경에서의 병리적인 현상이나 가치관의 미완성에 기인하는 바 적지 않으나, 청소년 자신에게 내재한 원인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Born(1997)은 비행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그만둘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상태나 부모의 정신병리 및 가족 내의 스트레스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보다 반사회적 성격이나 범법행동, 자기중심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지속적인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 외에 개인적인 요인 또한 동시에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며, 적합한 처우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문제를 비행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언급된다(박종진, 2004). 첫째,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행동, 둘째, 자신만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는 것, 셋째, 부모에게 변명 및 불순종하고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것, 넷째, 순간적인 우발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 다섯째, 자신의 일에는 적극적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비행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기애적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찍이, Lasch(1979)는 현대 미국사회를 자기애적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자기애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있는 도구(Goldman, 1991)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Kohut(1977)도 자기애가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애적 현상에 대해 부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공주병', '왕자병'과 같은 용어가 오래 전부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자기애적 성향이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뿌리박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차타순, 2001), 실제 이만홍과 육기환(1996)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에게도 자기애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보다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고,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애적인 가치관은 청소년비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비행을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인 자기애적 성격과 연관시켜 경험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청소년의 지도와 상담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연관지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지속적인 비행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확인된 비행위험성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셋째,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어떤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던데 비해, 본 연구는 실제 비행을 저질렀으며, 그 행동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인지되었거나, 혹은 처벌까지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청소년 비행의 특성

비행청소년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가 어린 시절의 한 차례의 실수나 통과의례처럼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원, 2003). 지금까지의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들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청소년 비행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에서 청소년 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비행성향(또래응집력, 비행친구, 비행가치, 비행인성), 가족의 심리적 관계, 학업적응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김선남, 1994),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가정환경 요인보다는 개인의 인성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아, 1995). 이때,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인성특성요인은 단일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인성특성을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인성특성 중 관습위배 경향성, 주도성, 충동성이 비행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한 특성임이 보고된 바 있다(이애령, 1998).

이동원(200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범횟수, 시설에서의 참여·몰입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의 범행은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흉폭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전문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재범청소년과 초범청소년을 비교 연구한 김헌수와 김현실(2001)은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와 가정안정도, 높은 공격성향, 반사회적 성격특성, 높은 우울성향을 재범과 관련된 특성으로 언급하면서, 초범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재범화되는 경향이 높음을 밝혔다. 특히, 처음 비행행동시의 연령은 청소년 재범예측요인으로 가장 높은 판별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재범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저연령가설에서 주장하는 재범예측 요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첫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령을 재범과 높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보고하였으며,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신체적 학대력, 적대감 등도 재범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서동혁, 정선주, 손창호, 김원석, 고승희, 함봉진, 조성진, 김영기, 이중재, 2001).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모두 정신병질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서구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나 재범예측 시 가장 중요한 변별기준으로 여겨지는 특성은 정신병질(psychopathy)이다. 정신병질적 행동 특성에 대해서, Hare (1996)의 PCL 평가항목은 좋은 말주변, 피상적인 매력, 자기가치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성, 병적인 거짓말, 연민이나 죄책감의 부족, 피상적인 감정, 공감능력 부족, 행동 책임감 수용의 실패, 높은 자극 추구, 무책임 등이며, Cleckley(1976)의 일차적 psychopathy의 특성으로는 병적인 자기중심성, 교묘한 속임수, 거짓과 위선, 대인관계에서의 둔감함, 충동성, 신뢰할 수 없음, 빈약한 판단력, 연민이나 죄책감의 부족 등이 있다(Bartol, 2001). 국내 연구(이수정, 김양곤, 이민식, 2005)에서는 이들 특성들 중 일부가 재비행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애적 성격

DSM-Ⅳ에서 정의하는 자기애적 성격은 자기의 중요성과 독특함에 대한 과장된 느낌, 끝없는 성공과 권력, 재능, 미모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의 열중,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믿음, 과도한 찬사 요구, 패배를 참지 못함, 특권의식과 특별한 대우나 복종을 기대함,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 타인을 질투하거나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음, 감정이입 및 공감의 결여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강은희, 2002). 그러나 Watson(1984)은 정상을 이상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DSM-Ⅳ에서 정의한 사람보다는 정도가 덜 하지만 그 특성이 정상인에게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영주, 1999). 이러한 자기애 성향은 만족을 위한 내적 보상과 안전, 자존감을 위해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포함한다. 자기애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강하며 더 중요한 존재이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아름답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고 한다(박정민, 1998).

자기애에 대한 정의는 이론가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많은 혼돈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애는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 등에서 특정한 현상적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것과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기제 혹은 과정으로서 자기애

를 정의하려는 것의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정의되고 있다(한수정, 1999). 먼저 자기애적 현상의 특징으로 자기애를 정의하려 함에 있어 Freud(1953), Fromm(1964), Kernberg(1975), Kohut(1971), Akhtar와 Thomason(1982), Wink(1991a, 1991b), Nunberg(1979), DSM-Ⅳ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현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화,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자기과시와 거만함, 특권의식과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자기중심적 지각,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 내면적 공허감과 무가치함, 취약성, 지나친 과민성 등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차타순, 2001).

자기애를 정의하는 두 번째 접근은 이러한 자기애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 혹은 과정으로 설명한다. 먼저 대상관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자기애적 현상은 분리상태의 지각에 의해 촉발된 분리불안의 신호에 대해 자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차적 자기애적 투자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즉, 분리의 지각은 분리불안과 대상상실 경험을 자극하게 되고, 이 불안은 모성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엄마가 자기의 한 부분으로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Kernberg(1975)에 의하면, 자기애적 성격은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실제 자기상들이 병리적으로 융합된 것이며, 그 결과 자기의 왜곡뿐만 아니라 초자아의 구조적 왜곡이 일어나 훼손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상들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부대상들에게로 투사된다고 하였다(김정욱, 1997). 또, Kohut(1971, 1977)은 자기애적 장애의 핵심병리는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인 구조의 부재 혹은 결핍이며, 자기애적 패턴은 자기표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애적 활동들은 약하고 미숙한 자기응집성과 자존감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표상의 파편화 및 구조적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기애에 대한 이론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자기애란 분리불안, 자기구조의 결핍, 자기구조의 병리적 융합 등의 원인으로 인해 취약해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위와 같은 자기애에 대한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자기애에 대한 경험적 문헌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웅대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Kernberg, 1975; Kohut, 1978; Emmons, 1984; Biscardi & Schill, 1985; Raskin, Novacek, & Hogan, 1991; Smalley & Stake, 1996; Bushman & Baumeister, 1998;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또한, 자기애적 성격성향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손상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대인관계이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는 냉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호혜성이 부족하며, 거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착취성, 노출적 과시행동, 그리고 이상적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애적 소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적대감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Robbins & Dupont, 1992; Rhodewalt & Morf, 1998).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적인 세계는 병리적이라고 보았다. 즉,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만성적으로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병리적 자기애의 또 다른 욕구는 자기자신의 고양감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들을 이용하고 조종, 혹은 착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Bursten(1973)은 이러한 성격들을 '조종적 성격' 이라고 서술하면서, 이러한 성격들은 정신병적인 혹은 반사회적인 성격들과 유사하며, 경계형 성격의 보다 원시적인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들이 자기애적 성격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은 타인들을 경멸하고, 자기고양을 하기위해 타인을 착취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들이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그것이 기만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직한 행위들을 포함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훌륭히 해냈을 때 그것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Meissner, 1985).

청소년 비행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속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명명 될 만큼의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청소년 비행은 현대 사회

문화의 주요한 특징인 자기애적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비행의 특성 중 일부는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자아, 공격성, 충동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McCann과 Biaggio(1989)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언어적 분노표현이 증가하고, 남자의 경우 자기애가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함을 밝혔다. 또한, Hart와 Joubert (1996)는 적대감의 어떤 범주가 자기애의 점수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애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적대감, 폭력, 부정, 의심, 언어적 적대감 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높은 점수는 자기 과대적인 귀인 스타일과 관련이 있고, 자기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대감과 반항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hodewalt & Morf, 1995).

몇몇 정신분석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자기애를 지루함과 연관시켜 왔다. Winnicott(1965)과 Kohut(1977)에 따르면, 자기애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내적 야망(참자기)과 외적으로 추구하는 현재 목표(거짓자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지루함과 불만족, 공허함을 초래하게 되는데(Svrakic, 1985), 이러한 측면은 지루함을 개인이 능력과 환경적 도전간의 불일치 또는 균형의 부족으로 추론한 Csikszentmihalyi(1975)의 관점과 유사하다(차타순, 2001). Emmons(1981)은 자기애가 지루한 감정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지루한 감정은 결국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이 감각추구를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자극추구 경향은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정신병질자의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하고(Cleckly, 1976), 따라서 청소년비행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일반청소년들 중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차타순, 2001)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 요인 중 허영심, 착취/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이 비행성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 중 특히 허영심이 비행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자가 심리적으로 적대감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수록 비행으로 나아갈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박정민(1998)은 일반고등학생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자기애성과 지배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지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자기애성과 지배성, 공격성간에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비행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수록 타인에 대해 더 높은 지배성과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강은희, 2002).

이렇게 보자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비행을 더 많이 지지를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두 연구는 심리적 특질들간의 관련성만 연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비행행위 자체와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직접적으로 관련짓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차타순(2001)의 연구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성향 역시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일종의 심리특질로서 측정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기애적 특성이 비행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실질적인 비행행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범죄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요인들이 비행행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일부 심리학적 배경에 근거한 범죄연구들에서도 심리적 요인들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2005). 즉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같은 심리요인들보다는 가정 및 양육환경, 학교생활 적응정도, 성장기 가출 경험,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입건 회수나 재범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절도 비행의 경우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에서 나타난 허영심과 같은 심리요인보다는 실제로 생존을 위한 의식주 해결 등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을 조사하기보다는, 실제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비행

행위와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관련지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125명과 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인 청소년 95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각 대상자와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자기애 성격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1 : 1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연구를 위해 제작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비행관련 특성 조사표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였으므로,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3부를 제외하고 총 197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부터 21세까지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16세와 17세가 각각 21.8%로 가장 많았으며, 15세가 15.7%, 18세가 14.2%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체 197명중 88명 즉 44.6%가 학교를 그만 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결혼 상태에서는 일반이 47.2%로 가장 많았지만, 이혼이 34.0%, 별거가 4.6%, 가출이 2.5%로 총 41.1%가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조사대상자의 죄명은 특수절도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은 16.8%를 나타냈다. 그 뒤로 절도가 12.7%를 나타냈으며,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이 각각 5.6%를 나타냈다. 즉 절도관련 비행을 저지른 대상자가 55.8%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비행동기를 살펴보면, 호기심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동기가 29.9%, 음주가 9.1%로 나타났다. 이 때 경제적 동기는 돈 자체를 얻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돈을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포함하여, 비행의 주된 이유가 돈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격분이 8.6%, 스릴추구가 7.1%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비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릴추구나 격분 등에 의한 표출적 비행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도구적 비행이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상자의 비행전력들을 보면, 입건수는 초범인 경우가 27.4%로 가장 많았고, 2회, 3회, 4회가 각각 24.9%, 20.3%, 20.2%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은 초범에 비해 2회 이상의 재범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소유예 전력은 66.5%가 없었으며, 보호관찰은 1회가 57.9%로 가장 많았다. 단·장기소년원 전력은 94.9%, 97.5%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들은 절도 비행자가 가장 많으며, 이들의 비행은 표출적이기 보다 도구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비행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집단이기 보다는 다소 경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비행관련 특성 조사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연령, 가족관계, 부모결혼상태,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죄명, 수법, 촉발요인, 피해자관계, 학대를 당한 경험, 폭주경험, 폭력집단 가입여부 등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은 경찰서 청소년계로 의뢰된 소년범들에 대한 자료 및 심리 검사 등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이 된 비행촉발요인조사표(이수정, 조은경, 2005)항목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아닌, 개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뽑아 낸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Raskin과 Terry(1988)의 자기애 측정 도구, Emmons(1981)의 자기애 측정 도구, 한수정(1999)이 Raskin과 Hall(1979)가 개발한 자기애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곽희경(1991)이 자아에 대한 Kohut의 자기심리학 개념 중 허위자율성 개념과 동료집단의존성 개념을 기초로 한 척도, 황순택(1995)이 DSM-Ⅳ의 진단 준거에 의거하여 만든 자기애적 성격 장애 공유척도 등을 참고로 하여 차타순(2001)이 다시 제작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차타순(2001)의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는 권위 9문항, 착취/특권의식 7문항, 우월성 7문항, 허영성 5문항, 자기중심성 7문항, 칭찬과 주목 7문항, 과장성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척도의 총 47문항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하위요인별 요인

표 1.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 취	자기중심성	자기애
우 월 성	1.000					
허 영 심	.646**	1.000				
특권의식	.648**	.565**	1.000			
착 취	.383**	.252**	.312**	1.000		
자기중심성	.513**	.370**	.482**	.520**	1.000	
자기애적 성격성향	.850**	.745**	.785**	.614**	.789**	1.000

**p<.01

부하량이 .40 이하가 되는 문항을 제외시켜, 우월성 7문항, 허영심 5문항, 특권의식 5문항, 착취 5문항, 자기중심성 8문항으로 총 30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때, 요인명칭은 차타순(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각 문항에 사용된 척도 범위는 7점 척도였다.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우월성 .87, 허영심 .84, 특권의식 .80, 착취 .79, 자기중심성 .82였다. 그리고 표 1은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 및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도 .01 수준에서 .25~.85의 상관분포를 나타냈다.

자료 분석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축요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Varimax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의 비행관련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비행관련 특성들 간의 어떤 유사성이나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변인간의 상관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검정을 이용하였다. 넷째,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비행청소년들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과 관련된 특성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비행청소년의 본 비행특성

비행과 관련이 있는 비행관련 특성들은 청소년비행을 다양한 시각에서 알아보기 위해, 본 비행에 대한 특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대인관계, 우범행동력, 자신에 대한 통찰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된 변인들은 표 2와 같이 18개였으며, 예를 들어, 비행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역할주도 변인에서 예로 체크된 것이며, 비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계획여부 변인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을 교차분

표 2. 비행관련 특성

변 인	예 N(%)	아니오 N(%)	전체 N(%)
역할주도	64(32.5)	133(67.5)	197(100.0)
계획여부	79(40.1)	118(59.9)	197(100.0)
대인가해	59(29.9)	138(70.1)	197(100.0)
대물가해	132(67.0)	65(33.0)	197(100.0)
조발비행	136(69.0)	61(31.0)	197(100.0)
학대경험	35(17.8)	161(81.7)	196 (99.5)
가출유무	124(62.9)	73(37.1)	197(100.0)
경고경험	41(20.8)	156(79.2)	197(100.0)
폭력집단	30(15.2)	167(84.8)	197(100.0)
비행또래	88(44.7)	109(55.3)	197(100.0)
또래연령문제	55(27.9)	142(72.1)	197(100.0)
대인관계문제	16 (8.1)	181(91.9)	197(100.0)
화학물질	12 (6.1)	185(93.9)	197(100.0)
인터넷중독	32(16.2)	165(83.8)	197(100.0)
폭주경험	48(24.4)	149(75.6)	197(100.0)
문제이해	129(65.5)	68(34.5)	197(100.0)
재범의욕	51(25.9)	146(74.1)	197(100.0)
사회지지	174(88.3)	22(11.2)	196(99.5)

표 3. 비행특성과 입건수, 전과경력 상관분석

	입건수	전과경력
비행위험성	.179*	.231*

*p<.05

석하여 각기 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토대로 비행특성 변인을 만들었다. 이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변인인 화학물질,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한 16개의 변인들에 각 1점씩을 주어, 합산하여 구성되었다.

이때, 비행특성의 평균은 5.79, 표준편차는 2.53이었다. 비행특성은 표 3에서와 같이, 입건수, 유죄처분 경력들을 합산한 전과경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비행특성이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과 다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

전체대상자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들과 비행특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4),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허영심과 특권의식은 비행특성과 각각 유의도 .05, .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입건수 및 전과경력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관분석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 척도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	자기애
비행특성	.081	-.143*	-.192**	.081	.111	-.052

*p<.05, **p<.01

비행유형별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

비행유형별로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들이 비행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유형을 절도(N=110), 폭력(N=37), 강간(N=8)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5), 절도 비행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허영심이 비행특성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중심성이 비행특성과 유의도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폭력비행과 강간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절도비행자의 비행위험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관분석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 척도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	자기애
비행위험성	-.053	-.195*	-.179	.147	.249**	.007

*p<.05, **p<.01

초범과 재범(2회 이상)별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

초범과 재범(2회 이상)별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들과 비행특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를 초범(N=53), 재범(N=142)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초범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범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허영심과 특권의식이 비행특성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표 6).

표 6. 재범자의 비행위험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상관분석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 척도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	자기애
비행위험성	-.108	-.200*	-.203*	.081	.115	-.073

*p<.05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허영심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전체 대상자(N=197)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허영심 점수의 범위는 30, 평균은 19.58, 표준편차는 7.75였다. 허영심은 비행관련 특성 중 학대경험, 폭주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즉,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집단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집단에 비해 허영심이 낮게 나타났다(t=1.95, p<.05). 또한,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주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허영심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t=-2.56, p<.01).

표 7. 허영심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비행관련 특성		N	평균(표준편차)	*df*	*t*
학대경험	유	35	17.29 (8.20)	194	1.95*
	무	161	20.09 (7.61)		
폭주경험	유	48	22.04 (7.15)	195	-2.56**
	무	149	18.79 (7.80)		

*p<.05, **p<.01

특권의식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전체 대상자(N=197)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특권의식 점수의 범위는 28, 평균은 21.15, 표준편차는 7.07이었다. 표 8은 특권의식이 비행관련 특성 중 조발비행, 또래연령문제, 폭주경험, 문제이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만 15세를 기준으로 처음 입건된 연령이 15세 이하인 경우를 조발비행, 15세 이상인 경우를 비 조발비행으로 구분하였을 때, 조발비행인 집단은 조발비행이 아닌 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낮게 나타났다(t=2.18, p<.05).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적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집단은 자신과 나이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t=2.46, p<.05).

한편,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주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높게 나타났다(t=-2.32, p<.05). 또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특권의식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t=3.10, p<.01).

표 8. 특권의식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비행관련 특성		N	평균(표준편차)	*df*	*t*
조발비행	유	136	20.42 (7.15)	195	2.18*
	무	61	22.77 (6.67)		
또래연령문제	유	55	19.18 (6.53)	195	2.46*
	무	142	21.91 (7.15)		
폭주경험	유	48	23.19 (7.11)	195	-2.32*
	무	149	20.49 (6.96)		
문제이해	유	129	22.26 (6.78)	195	3.10**
	무	68	19.04 (7.19)		

*p<.05, **p<.01

착취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전체 대상자(N=197)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착취 점수의 범위는 30, 평균은 12.37, 표준편차는 5.91이었다. 착취는 비행또래, 재범의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표 9). 즉,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와 어울리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착취가 높게 나타났는데(t=-3.46, p<.001), 이는 청소년들이 비행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착취 행동과 태도에 쉽게 동조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의 학습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재범의욕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착취가 높음이 나타났다(t=-2.21, p<.05).

표 9. 착취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비행관련 특성		N	평균(표준편차)	*df*	*t*
비행또래	유	88	13.94 (6.16)	195	-3.46***
	무	109	11.09 (5.40)		
재범의욕	유	51	13.92 (5.47)	195	-2.21*
	무	146	11.82 (5.98)		

*p<.05, ***p<.001

자기중심성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전체 대상자(N=197)의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 점수의 범위는 45, 평균은 26.72, 표준편차는 10.19였다. 표 10은 비행관련 특성 중 역할주도, 재범의욕, 사회지지에 따라 자기중심성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비행을 저지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10. 자기중심성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비행관련 특성		N	평균(표준편차)	*df*	*t*
역할주도	유	64	24.38 (9.99)	195	2.25*
	무	133	27.83(19.13)		
재범의욕	유	51	30.63(10.20)	195	-3.27***
	무	146	25.34 (9.86)		
사회지지	유	174	26.23(10.25)	194	-2.02*
	무	22	30.86 (8.99)		

*p<.05, ***p<.001

(t=2.25, p<.05). 또한 재범의욕이 있는 집단은 재범의욕이 없는 집단보다 자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t=-3.27, p<.001). 가족, 친구, 기타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t=-2.02, p<.05).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전체 대상자(N=197)의 자기애적 성격성향 점수의 범위는 154, 평균은 102.38, 표준편차는 30.53이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비행관련 특성은 폭주경험이었다(표 11). 즉,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주경험이 없었던 집단보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게 나타났다(t=-2.57, p<.05).

표 11.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

비행관련 특성		N	평균(표준편차)	*df*	*t*
폭주경험	유	48	112.08(32.04)	195	-2.57*
	무	149	99.25(29.46)		

*p<.0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일반적으로 성격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관련 행동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성향과 행동들이 상당히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보다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는 실질적인 비행행위, 입건수 및 전과경력 이외에 비행특성 요인점수와 개인의 내적 특질로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었다. 비행특성 요인은 본 비행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대인가해 여부, 대물가해 여부, 비행또래 유무, 가출 유무, 피학대 경험, 폭력집단에의 가입 여부, 재범에의 의지 등 본 비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동특성들이었다. 자기애적 성격 성향은 권위나 명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특별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특권의식,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착취,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비범하다는 우월성, 외형이나 형식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허영심,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자기중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전 연구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기대는 본 비행의 행동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유의한 관련성을 지녔을 것이란 점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는 달리 일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자기애적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들은 비행관련 행동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및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의 비행관련 특성은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 역할주도, 계획여부, 대인가해, 대물가해, 조발비행, 학대경험, 가출유무, 경고경험, 폭력집단, 비행또래, 또래연령문제, 대인관계문제, 화학물질, 인터넷 중독, 폭주경험, 문제이해, 재범의욕, 사회지지 등의 18개의 관련 특성 중 화학물질과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한 16개의 변인들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관계가 있는 16개의 변인들의 합으로 구성된 비행특성 변인을 만들었다. 이때, 비행특성이라는 변인은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1점씩을 주었기 때문에, 각 비행관련 특성 각각의 비중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비행특성은 입건수와 전과경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비행특성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입건수 및 전과경력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입건수와 전과경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전반적인 비행특성과는 일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허영심과 특권의식은 비행특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차타순(2001)의 연구에서 약물사용, 폭력행동, 이성관계, 교우관계로 구성된 비행요인과 허영심, 특권의식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것, 정적으로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성향 하위요인이 허영심과 착취/특권, 자기중심성이었다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선행연구에서의 대상자 특성과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 연구(차타순, 2001)에서는 실제 입건된 적이 없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입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다수(72.6%)가 재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상자들의 죄명에서 특수절도와 절도가 5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폭력 비행자들이 절도 비행자들에 비해 신체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으로도 자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김유자(2000)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허영심과 특권의식이 모든 종류의 비행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비행유형별로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절도비행에서 비행특성과 허영심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중심성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폭력비행이나 강간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절도가 자신을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에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절도 비행자들이 기존 연구들의 대상자에 비해 환경적으로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허영심이나 특권의식 등은 상당히 부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절도의 이유가 극도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허영심이 비행 특성과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서 폭력과 강간이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례수를 좀 더 확보하여 특정 비행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초범과 재범(2회 이상)별로 비행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초범에서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범에서는 비행특성과 허영심, 특권의식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우발적으로 일으킨 일회성의 비행에 비해,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비행의 동기는 단순히 호기심보다는 실제로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상받으려는 욕구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오히려 허영심, 특권의식 등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우월성은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허영심은 비행관련 특성 중 학대경험, 폭주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이 있었던 집단은 학대경험이 없었던 집단에 비해 허영심이 낮게 나타났고,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주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허영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이륜차 운전자들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하든지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다(이순철, 2000)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특권의식은 조발비행, 또래연령문제, 폭주경험, 문제이해라는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발비행인 집단이 조발비행이 아닌 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낮다는 결과는 일찍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보다 오랫동안 비행청소년으로서의 낙인이 찍혀왔을 것이고, 이러한 낙인의 영향으로 특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적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집단은 자신과 나이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낮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나이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면, 자신의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되었다는 대인관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특권의식이 낮을 수 있다. 한편,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보다 높은 특권의식을 나타냈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착취는 비행또래, 재범의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와 어울리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착취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달학적 관점에서 비행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이후에 지속되는 비행 행동에는 유사한 비행문제를 가지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서동혁 등, 2001)는 것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착취 행동 및 태도가 또래관계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범의욕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착취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기중심성은 역할주도, 재범의욕, 사회지지에 따라 자기중심성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비행을 저지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지지체계가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재범의욕이 있는 집단은 재범의욕이 없는 집단보다 자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비행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저지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범의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에게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은 비행관련 특성 중 폭주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폭주경험이 있는 집단은 폭주경험이 없었던 집단보다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오토바이 폭주행동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고, 다른 집단이나 일반시민에게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집단 폭행사건을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하성수, 2003)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비행특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하위요인 중 허영심과 특권의식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냄으로서, 허영심과 특권의식이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든 종류의 비행이 아닌 일부 폭력을 포함하는 비행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절도 등을 포함한 전체 비행까지는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절도 비행자의 경우 허영심과 특권의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보다는 가정이나 양육환경,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절도비행의 경우 자기중심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냄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하위요인 중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은 비행관련 특성들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기애를 병리적인 자기애나 정상적인 자기애로 규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애는 성격의 보편적이고 건강한 속성으로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인간의 삶에 활력과 자존감을 제공하여 오히려 인생의 긍정적인 인격요소로 기여하지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아래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강유임,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자기애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애 성격성향 및 하위요인들이 비행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단순히 비행청소년의 특징으로 보거나, 자기애적 성격성향일수록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며, 그들의 비행관련 특성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허영심이나 특권의식 등의 심리적 요인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그들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비행청소년들 각자에게 보다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순히 일부 청소년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허영심이 있다는 것, 착취의식이 있다는 것과 비행 또는 공격성이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만을 보고, 모든 비행청소년들이 그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청소년 각자에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만 심리특질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비행청소년들의 열악한 환경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주는 처우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유임 (2002).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은희 (200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선영 (2004). 시설수용소년범의 공감능력 차이 : 범행위험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희경 (1991). 대학생 나르시시즘 성향과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자 (2001).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5(1), 25-45.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2005).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유자 (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우울 성향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욱 (1997). 나르시즘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2(1), 43-59.

김헌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40(2), 279-291.

박정민 (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진 (2004).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동혁, 정선주, 손창호, 김원석, 고승희, 함봉진, 조성진, 김영기, 이중재 (2001). 구속된 비행 청소년들의 석방 후 6개월 이내 재범의 예측요인. 신경정신의학회, 40(3), 463-476.

이동원 (1997). 청소년비행의 통제요인과 유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0.

이만홍, 육기환 (1996). 한국인이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678-689.

이상현 (1994).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27-42.

이순철 (2000). 교통심리학. 학지사.

이애령 (1998). 비행청소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아 (1995).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타순 (2001).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성수 (2003). 청소년이륜차 운전자 특성분성을 통한 안전대책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 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머니투데이 (2004). 소년범죄, 초범은 감소. 누범자비율은 증가. 10월 17일.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Bartol, C. R. (2001). *Criminal Behavior : A Psychological Approach.* NJ : Prentice-Hall.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30.

Biscardi, D., & Schill, T. (1985). Correlations of narcissistic traits with defensive style, Machiavellianism, and empathy. *Psychological Report, 57,* 354.

Born, M., Chevalier, V., & Humblet, I. (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6),* 679-694.

Bursten, B. (1973). Some narcissistic personality typ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4*, 287-300.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Cleckley, H. (1976). *The mask of sanity*(5th ed.) St. Louis, MO : Mosby.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Emmons, R. A. (1981).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247-250.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Freud, S. (1953). *On Narcissism : An Introduction*. London :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14).

Fromm, E. (1964). *The Heart of man; Its genius for good and evil*. New York : harper and row.

Goldman, I. (1991). Narcissism, social character, and communication : A Q-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Psychological Record, *41*, 343-360.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 *79*, 161-162.

Hare, R. D. (1996). Psychopathy : A clinical construct whose fin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 Aronson.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 An Outline*(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175-196.

McCann, J. T., & Bo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Meissner, S. J., & W. W. (1985). Can psychoanalysis find its self?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Nunberg, H. G. (197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Diagnosis*. Weekly Psychiatry Update Series, 3 : Lesson 17.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890-902.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Ro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Smalley, R. L., & Stake, J. E. (1996). Evaluating sources of ego-threatening feedback : Self-esteem and narcissism effec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483-495.

Svrakic, D. W. (1985). Emotional featur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720-724.

Watson, C. G., Gric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 (1984). Narcissism and empathy :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301-305.

Wink, P. (1991a). Self- 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Winnicott, D. W.(1965). Ego distortions in terms of true and false self :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 Hogarth.

KCI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6, Vol. 20, No. 2, 1~18

The Relationship Between Features of Delinquent Conduct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of Juvenile Offenders

Soo Jung Lee Hye Sun Lee

Kyonggi University

For preventing juvenile recidivism and treating criminality of juvenile offenders,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among features of delinquent conducts, narcissistic personality of juvenile offenders. First, a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by linearly combining delinquent features of current conduct(s). And the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this variabl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Finally, we evaluated how delinquent characteristics might be related to narcissistic personal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indicated there is not any overall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the features of delinquent conducts. However,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as found among vanity and privilege-consciousness scores, two sub-factor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scales and criterion variables, delinquent characteristics of current conducts. Second, narcissistic personality, vanity, privilege-consciousness, exploitation and self-centeredness indicated various different relations with delinquency-related features. Thes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narcissistic personality of juvenile offenders might not always make negative effect on actual delinquent behaviors. Thus, with considera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juvenile offenders, we could apply more suitable and effective treatments for them.

Key words : Feature of Delinquent conducts, Narcissistic Personality, Juvenile offender

원고접수 : 2006년 3월 7일
심사통과 : 2006년 3월 29일

부록 1. 자기애적 성격성향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내 용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 중심성
· 나는 남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646				
· 모두들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634				
·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614				
· 나는 여러모로 사람들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을만 한 사람이다.	.567				
·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59				
·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아마 내가 가장 창의력이 높을 것이다.	.528				
· 나의 능력은 탁월한 편이다.	.494				
· 나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본다.		.752			
· 나는 나 자신의 외모를 살펴보기를 좋아한다.		.664			
·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과시해보고 싶다.		.634			
· 나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523			
·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476			
· 다음 중 한 가지(혹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적이 있다(최고의 성공, 막강한 권력, 최고의 미, 이상적인 사랑, 누구보다 위대해지는 것).			.718		
· 나는 유명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싶다.			.637		
·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다.			.443		
· 마음만 먹으면 남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보다 훨씬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425		
· 나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존경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05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종 남을 속일 필요가 있다.				.704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하는 것 은 큰 잘못이 아니다.				.683	
· 약한 사람을 좀 이용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625	
·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610	
· 내 주위에 권력가나 든든한 빽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 든든한 일이다.				.486	

<계속>

문 항 내 용	우월성	허영심	특권의식	착취	자기중심성
·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659
·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바라는 사람에게는 몹시 화가 난다					.654
·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568
·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529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의 입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502
·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483
·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449
· 나는 힘을 쓰는 높은 자리를 얻고 싶다.					.402
고 유 치	15.30	2.91	1.41	1.34	1.13
설명량(%)	32.55	6.20	3.00	2.84	2.40